

생곡주택

Seang Gok residence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258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29m²
 건축면적 172.48m²
 연면적 256.05m²
 건폐율 52.43%
 용적률 77.83%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실크벽지마감
 외부마감 방부목, 적삼목, 드라이비트 토탈시스템
 설계담당 탁현경, 안광순

Location 258, Saenggok-dong, Gangseo-gu, Busan, Korea
 Site area 329m²
 Bldg. area 172.48m²
 Gross floor area 256.05m²
 Bldg. coverage ratio 52.43%
 Gross floor ratio 77.83%
 Structure R,C
 Bldg. Scale two stories above ground



1. 앞산 언덕에서 내려다본 전경
 2. 가로변 후 전경





2002년 9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주택설계 의뢰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젠 농사일을 놓으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헐고 새로 짓겠다는 것인데, 흥미 있는 몇 가지 요구를 듣게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현재의 부지가 산과 바로 접하다보니 부지 내로 작은 수로가 형성되어 항상 물이 흘러들어 온다는 것이다. 당시의 집도 작은방 아래로 작은 수로가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집을 아예 한층 들어 올려 짓고 싶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가 5남매인데 한 두 달에 한번씩 온가족이 다 모이면 손주까지 22명이나 되어 노부부중심의 일상의 주거방식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버린다.

변화된 마을, 가치관의 변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생곡동은 10여 년 전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맞는다. 매립장 유치에 대한 보상으로 가난한 농촌은 예상치 못한 보상금으로 부자도 되고 쓰레기 분리처리장의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기존의 60가구의 농가는 갑자기 120가구로 배로 늘고 타지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인간애는 사라지고 각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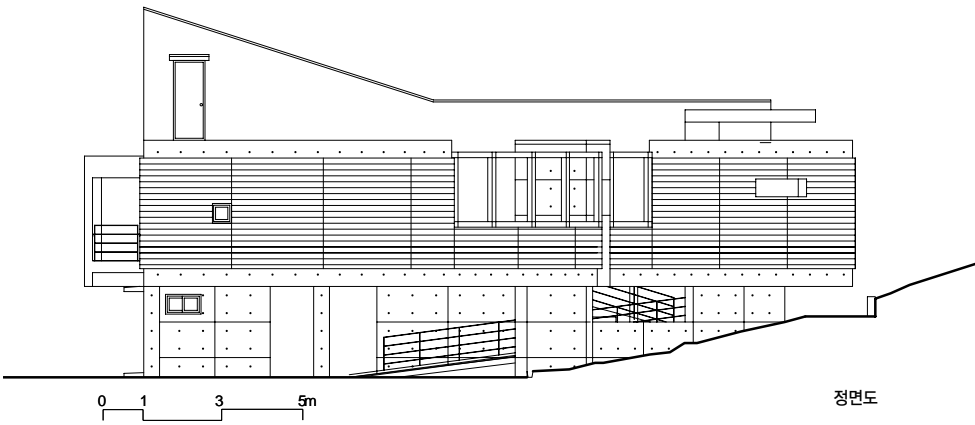
지면서 마을 공동체는 급속히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서향으로 마을과 눈을 바라 보고있다. 동남향의 산을 등지고 마을의 끝단에 위치하여 언제나 삶을 함께 하고 생사고락을 나누던 이웃과 생존의 터를 향해 살아왔던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언제나 삶의 공동체인 마을을 향해서 말이다. 그러나 노동의 세월이 끝나고 씬의 여생을 맞이한 노부부에게는 이렇게 변해버린 마을과 경작지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고, 비록 마을은 등지지만 서향집으로 인한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경관이 우선이 되어 미련 없이 앞산으로 향하는 남향의 집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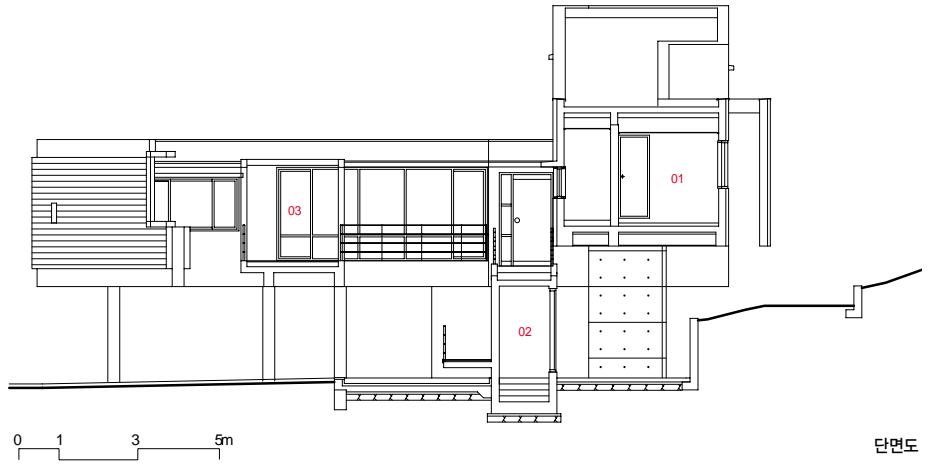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

접지층의 완전한 개방으로 그 윗 층은 무언가 막아야겠다는 선입관이 든다. 묘하게 절곡되어지는 이 새로운 대지경계를 따라 2층 레벨은 폐쇄형 가벽으로 경계를 지운다. 이것은 서향을 차단하겠다는 전제도 있었고 앞산으로 올라가는 주변으로 이웃들의 텃밭들이 있어 주거층의 노출을 어느 정도 막고 내부에서도 적당

한 경관만 확보되면 가리워져 안정감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이다. 노부부에 대한 프로그램은 단순하다. 다만 일상의 생활공간과 일시에 확장되는 영역을 명확히 분절만 하면 된다. 두 사람만 생활할 때와 자녀들이 모두 모였을 때의 주거양태는 확연히 구별된다. 평소에는 썰렁하지 않으면서 대식구가 올 때는 자연스럽게 합쳐 질 수 있는 구조로 잠시 지체하는 여유의 방들은 남향과 직교시켜 동서향으로 자리한다. 이 집의 중심공간이라 할 수 있는 하부로부터의 진입공간은 노부부와 어린 손주들을 위해 경사로를 만든다. 중심의 빈 공간은 가벽과 확장된 공중테라스, ‘ㄱ’자로 깎이는 평면이 에워싼다. 마당에 직접 접 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공중테라스를 외부경계까지 확장시켜 2층 주거레벨에서 띄워짐으로인해 오는 격리감을 다소 완화되길 희망한다. 거실, 복도와 함께 앞뒤로 장치되어진 옥외테라스들은 서로 다른 레벨들로 둘러 쌓여 다양한 마주침이 있게 하여 어린 손주들에게 흥미유발과 즐거움이 있는 ‘자주 가고싶은 할아버지집’은 설계초기부터 머릿속을 맴돌았다. ㉮



- 01 화장실
- 02 창고
- 03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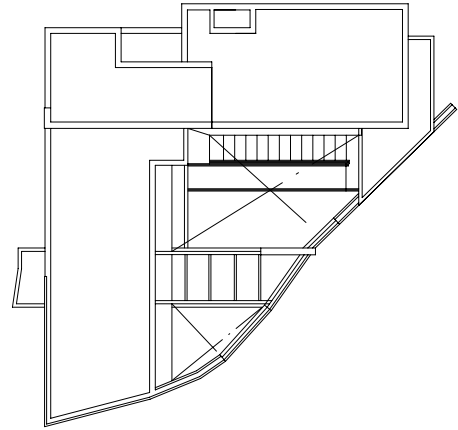


- | | | |
|---|---|---|
| 1 | 2 | 3 |
|---|---|---|
- 1. 2층 주거지로 올라가는 공간
 - 2. 2층 데크
 - 3. 거실에서 남향으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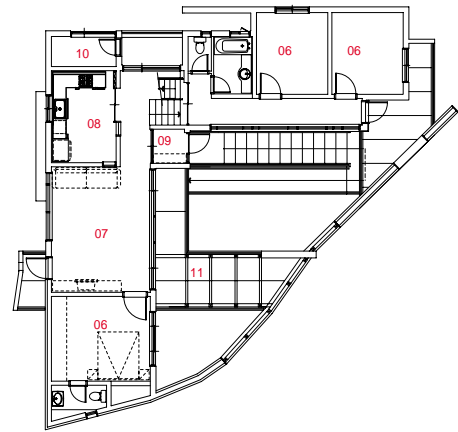
- 01_ 보일러실
- 02_ 창고
- 03_ 데크
- 04_ 수공간
- 05_ 주출입구
- 06_ 방
- 07_ 거실
- 08_ 주방 및 식당
- 09_ 현관
- 10_ 다용도실
- 11_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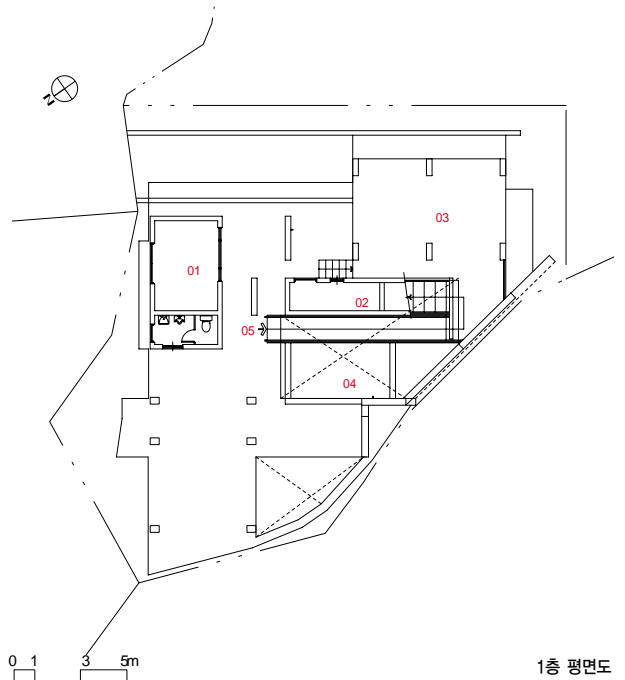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 | | |
|---|---|
| 1 | 5 |
| 2 | 6 |
| 3 | |
| 4 | |

- 1. 전면 파사드
- 2. 건물 진입 피로티 공간
- 3. 진입 데크
- 4. 마당에서 올라다본 테라스 상세
- 5. 외부통새로 보여주는 중정
- 6. 작은방들로 이어지는 복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